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GROUPE DE LA BANQUE AFRICAINE
DE DEVELOPPEMENT

주요 사항

아프리카 경제 전망 2024

아프리카의 변화를 이끄는 글로벌 금융 체계 개혁



Translation Disclaimer:

“Original document is in English and Japanese version is for the reader’s convenience only.
Kindly refer to the original English version as necessary”.

본 문서의 원본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한국어판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어 원문 버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e opinions expressed and arguments employed herein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views of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its Board of Directors, or the countries they represent. This document, as well as any data and maps included,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or sovereignty over any territory, to the delimitation of international frontiers and boundaries, and to the name of any territory, city, or area.

© African Development Bank 2024

You may copy, download, or print this material for your own use, and you may include excerpts from this publication in your own documents, presentations, blogs, websites, and teaching materials, as long as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is suitably acknowledged as the source as copyright owner.

본 문서에 표현된 견해와 적용된 주장은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이사회, 혹은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대변하는 회원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문서와 문서 내에 포함된 모든 정보 및 지도는 그 어떤 영토의 지위나 주권, 국제 국경 및 경계의 분계선, 그리고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 2024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본 자료를 복사, 다운로드, 혹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자료의 출처 및 저작권자가 아프리카개발은행이라는 것의 적절히 명시한다는 전제 하에 본 자료의 발췌 내용을 사용자의 문서, 프레젠테이션, 블로그, 웹사이트 및 교육 자료에 인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1장

아프리카의 경제 실적과 전망

여러 차례 충격이 있었지만 아프리카 경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2025년 평균 성장률은 2023년 3.1%보다 1% 높은 4.0%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평균 성장률은 2022년 4.1%에서 2023년 3.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의 지속으로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수출 실적을 압박하는 글로벌 수요 약세, 농업 생산성 및 전력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기상 이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과 분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계속되는 역풍에도 아프리카 15개국은 2023년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3개국은 낮은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아프리카 국가 중 절반 이상(31개국)은 2022년보다 2023년 더 높은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그 중 6개국(부르키나파소, 지부티, 에스와티니, 콩고공화국, 남수단)은 2%포인트 이상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도전과제로 인해 전 세계가 시험대위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은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성장에 부담을 주었던 상기 언급한 요인들이 대부분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3.7%, 2025년에는 2022년 4.1%를 상회하는 4.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부록 1.1A). 아프리카의 평균 성장률 반등은 동아프리카(3.4%포인트 상승), 남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각각 0.6% 포인트 상승)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40개 국가가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17개국은 2024년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2025년에는 5%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국가가 24개국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수치이며, 아프리카는 2024년 전 세계 평균 GDP 성장률 3.2%를 초과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3년에 이어 2024-2025년에도 아시아 다음으로 두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가나에서 개최된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합의된 문구. 알제리, 중국, 이집트, 에스와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보(reservation) 의견을 입력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라는 문구를 제안했다.

**경제 구조, 원자재 의존도,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 대응 정책의 차이로 인해
2024-2025 성장 전망은 아프리카 지역 및 국가
별로 상이하다.**

- 동아프리카는 실질 GDP 성장률이 2023년 1.5%에서 2024년 4.9%, 2025년 5.7%로 상승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월 발표한 아프리카 거시경제 성과-전망(MEO)의 전망치 대비 2024년 0.2%포인트 하향조정된 이유는 수단 및 남수단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예상보다 큰 폭의 경제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중앙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23년 4.3%에서 2024년 4.1%로 다소 하향 조정된 후 2025년 4.7%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이유는 금속 가격 호조로 인해 차드와 콩고민주공화국의 성장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서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23년 3.6%에서 2024년 4.2%로 상승하고 이듬해에는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4년 1월 발표한 MEO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이 지역의 주요 경제국의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 북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23년 4.1%에서 2024년 3.6%, 2025년 4.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1월 발표한 MEO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되었다. 리비아와 모리타니를 제외한 북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은 모두 하향 조정 되었다.
- 남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23년 1.6%에서 2024년 2.2%로 소폭 회복되고 2025년에는 2.7%로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2025 성장률은 2024년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예상 성장률 0.7%포인트 상승이 반영된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대 비중이 커짐에 따라 상향 조정된 성장률 전망치가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잠비아, 짐바브웨의 하향 조정에 따른 복합적인 효과를 상쇄했다.
- 비자원집약적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2023년 4.8%에서 2024년 5.3%, 2025년 5.6%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은 주요 성장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 증가, 전기, 교통, 물류 등 핵심 공공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자본지출로 뒷받침된다.
-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의 성장률은 2023년 5.8%에서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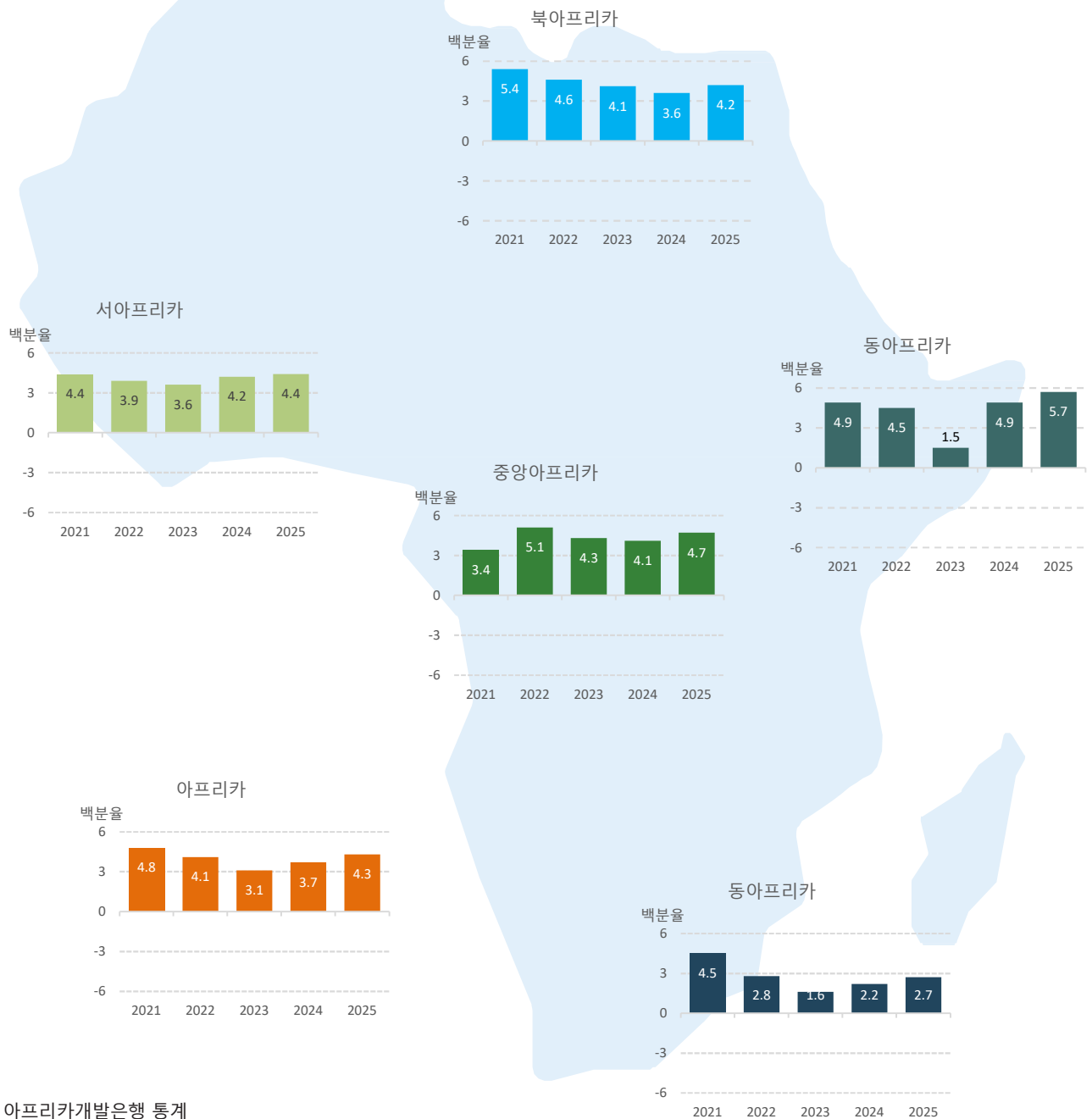
4.7%, 2025년에는 3.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둔화는 관광객 수가 추세 수준(trend level)으로 안정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리셔스와 세이셸의 경제성장 둔화가 이 그룹의 주요 동인으로 예상된다.

- 석유 수출국의 평균 성장률은 2023년 3.7에서 2024년 3.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5년에는 4%까지 회복할 수 있다. 2024년 예상되는 성장 둔화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결정한 석유 생산 목표치 하향 조정,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한 송유관 파손으로 남수단의 낮은 성장 전망, OPEC 탈퇴 이후 앙골라의 새로운 석유 수출 메커니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 아프리카 대륙의 기타 (비석유) 자원 집약적 국가의 성장률은 2023년 0.3%에서 2024년 2.7%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률 증가는 주로 스마트 그리드 및 건설 분야의 확장 관련 중국의 금속 및 광물 수요 회복에 기인한다.

아프리카 거시경제의 역동성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 속에서 여전히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2024-2025년 국가 별 주요 거시경제 지표 평균에 대한 세부 전망을 제시하고 부록 1.1B는 2024년과 2025년 세부 정보를 담고 있다.

아프리카의 평균
성장률 반등은
주로 동아프리카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3.4% 포인트 증가)

그림 1 2021-2025년 지역별 성장 실적 및 전망(백분율)



출처: 아프리카개발은행 통계

아프리카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14%에서 2023년 17%로 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뭄에 기인한 국내 공급 부족으로 인한 현지 식품가격 상승, 2020-2021년 시행된 팬데믹 관련 재정 및 통화 부양책에 기인한 과잉 유동성, 미국 고금리로 인한 미 달러 강세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의 파급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림 2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2024-2025년 평균)

국가	실질 GDP		경상수지 균형	재정수지 균형	국가	실질 GDP		경상수지 균형	재정수지 균형
	성장률	인플레이션				성장률	인플레이션		
					레소토	1.9	5.2	-4.8	-1.9
알제리	3.8	6.2	0.4	-11.5	라이베리아	5.7	7.0	-24.2	-3.0
앙골라	3.5	15.3	4.3	-1.3	리비아	7.0	2.7	23.4	6.5
베냉	6.3	2.3	-4.3	-3.5	마다가스카르	4.9	7.8	-4.2	-4.4
보츠와나	4.2	4.3	1.2	-1.0	말라위	3.5	20.8	-8.9	-8.2
부르키나	4.2	2.2	-6.0	-5.7	말리	5.0	1.9	-6.2	-3.8
파소	5.2	17.3	-6.5	-4.1	모리타니	4.8	4.5	-8.0	-1.8
부룬디	4.8	2.1	-6.5	-2.7	모리셔스	4.3	5.4	-4.3	-4.4
카보베르데	4.2	5.3	-1.8	-0.3	모로코	3.6	3.9	-0.7	-4.3
카메룬	2.7	3.7	-9.5	-2.4	모잠비크	5.2	4.8	-40.6	-2.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2	3.3	1.1	2.5	나미비아	2.9	4.5	-9.0	-4.1
차드	4.3	2.5	-5.6	-3.2	니제르	9.1	3.3	-8.3	-3.7
코모로	5.7	13.5	-4.1	-1.6	나이지리아	3.3	26.2	3.3	-4.2
콩고민주 공화국	4.3	3.3	2.8	3.3	르완다	6.7	6.1	-10.8	-6.1
콩고공화국	7.0	3.2	-6.5	-3.6	상투메	1.6	11.6	-10.2	-3.1
코트디 부아르	6.4	1.9	19.8	0.1	프린시페	9.8	4.1	-9.6	-3.6
지부티	3.9	29.2	-3.1	-6.8	세네갈	4.1	1.8	-7.2	-1.4
이집트	3.0	4.0	12.7	0.7	세이셸	5.0	26.9	-3.2	-2.6
에리트레아	4.2	5.0	3.4	-1.9	시에라리온	3.8	4.6	-10.3	-0.9
에스와티니	6.7	18.4	-1.6	-2.6	소말리아	1.5	4.6	-3.0	-4.3
에티오피아	2.8	2.4	-0.2	-0.9	남아프리카공화국	-2.0	17.8	-5.5	-4.0
가봉	6.0	13.5	-6.6	-2.8	남수단	-2.7	121.7	-5.9	-4.5
감비아	3.8	16.0	-2.1	-4.6	수단	5.8	3.4	-4.1	-2.5
가나	4.8	10.6	-10.0	-2.5	탄자니아	5.6	2.4	-3.1	-5.3
기니	5.0	4.3	-4.3	-3.4	토고	2.5	6.9	-3.7	-6.2
기니비사우	5.5	5.8	-4.6	-5.4	튀니지	6.5	4.7	-8.5	-3.9
케냐					우간다	4.5	8.2	5.8	-4.3
					잠비아	2.8	21.2	0.5	-1.6
					짐바브웨				

참고: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백분율로 표시했으며 경상수지 균형과 재정수지 균형은 GDP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했다. 이 히트맵은 선별된 주요 거시 경제 지표에 대한 국가별 전망을 보여준다. 녹색은 우수, 노란색은 양호, 붉은색은 취약한 상태를 나타낸다. 실질 GDP 성장률은 6%보다 높으면 녹색, 4-6%는 노란색, 4% 미만은 붉은색으로 나타낸다. 인플레이션은 5%보다 낮으면 녹색, 5-9.9%는 노란색, 10%보다 높으면 붉은색으로 나타낸다. 경상 수지 흑자는 녹색, 5% 미만 적자는 노란색, 5%를 넘는 적자는 붉은색으로 나타낸다. 재정 흑자와 3% 미만 적자는 녹색, 3-5%는 노란색, 5%를 넘는 적자는 붉은색으로 나타낸다.

출처: AfDB 자체 작성 수치.

지역별로 인플레이션 상황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년 **동아프리카**의 인플레이션율은 26.5%로 가장 높으며, 그중 수단이 245.3%로 가장 높았다. **서아프리카**는 인플레이션율이 20.3%로 두번째로 높으며 시에라리온과 가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북아프리카는 이집트의 물가 상승과 지정학적인 긴장으로 인해 2023년 인플레이션율이 8.1%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하여 평균 16.3%를 기록했다. **중앙아프리카**의 인플레이션도 3.5%포인트 증가하여 10.3%를 기록했고 그 중 콩고민주공화국은 10.6% 포인트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앙골라,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의 하락에 힘입어 **남아프리카**에서만 인플레이션율이 2022년 10.8%에서 2023년 한 자릿수인 8.6%까지 하락했다.

아프리카 전역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사회 경제적 성과를 약화시켰다. 아프리카의 인플레이션율은 2023년 17%, 2024년 17.8%, 2025년에는 12.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2024년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국내외 식품 시장의 높은 식량 가격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 주로 산유국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정책금리 인상과 같은 기존 통화정책 도구의 효과가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2022년보다 덜하긴 했지만 2023년에도 아프리카 통화 가치 하락은 지속되었다. 지속적인 글로벌 고금리와 지정학적 및 무역 긴장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대부분 아프리카 통화는 2023년 미국 달러 강세 대비 추가적인 가치 하락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통화 나이라는 2023년 95.6% 평가 절하되었다. 이러한 평가 절하는 2023년 6월 외환 시장 개혁에 따른 시장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나이라 통화 가치가 상승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손실은 앙골라 콰자(32.8%)와 잠비아 콰차(15.4%)에서 발생했다. 두 국가 모두 시장에서 외화 유동성이 제한되었으며 앙골라에서는 유가 하락과 중군 채권단의 모라토리엄 종료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잠비아에서는 장기화된 채무 구조조정으로 인해 시장 심리가 약해지면서 더욱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 그러나 2023년에 달러 대비 어느 정도 강세를 회복한 유로화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고정 환율제로 인해 CFA 프랑, 모로코 디르함, 카보베르데 에스쿠도, 상투메 프린시페 도브라, 코모리아 프랑과 같은 특정 통화는 2023년에 미국 달러 대비 손실폭을 축소하고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재정 적자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하기 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각 국가가 지출을 억제하고 국내 수입을 증대 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재정 상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업데이트된 추정치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평균 재정적자는 2022년 GDP의 4.9%에서 2023년 5%로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기초재정수지가 2022년 GDP의 1.6%에서 2023년 GDP의 2.1%로 소폭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재정수지 적자의 악화는 주로 에너지 부문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식량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에 기인한다. 2023년 GDP의 5%로 소폭 증가했던 아프리카 대륙의 재정적자는 2024년 GDP의 4.7%, 2025년 GDP의 4.3%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경상수지 적자는 2023년 GDP의 1.7%에서 2024-2025년 GDP의 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유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배럴당 77달러 내외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 순수입국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치는 2024년과 2025년 1월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중국의 건설 부문이 안정되고 투자 회복과 견고한 소비 지출에 힘입어 내수 경제가 회복되면서 세계 무역이 반등하고 중국의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 여건의 긴축과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프리카로의 외부 금융 유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공개개발원조(ODA), 포트폴리오 투자, 송금 등 아프리카로의 외부 금융 유입은 2021년 2,171억 달러에서 19.4% 감소하여 2021년 2,171를 기록했고 이는 아프리카 GDP의 5.9%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소세는 팬데믹 직후의 강력한 회복세를 반전시키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44% 감소했고, 포트폴리오 순유출은 17%, ODA 유입은 약 6% 감소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국가들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재정 상황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송금만 0.2% 소폭 증가를 기록했다.

공공부채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아프리카 대륙의 부채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의 공공부채 중앙값은 2019년 GDP 대비 54.5%에서 2020년 64%로 증가했으나, 2021년~2023년에는 약 63.5%로 안정화되었고, 2024년부터는 약 60%로 더 감소하여 10년간의 상승 추세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부채 수준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적으로 안정화되었지만, 전례 없는 충격으로 인해 공공 재정이 불안정한 많은 국가에서 부채 비율은 높고,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글로벌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신중한 낙관론이 필요하다.

채무과잉은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경제를 지원하고 높은 식량 및 에너지 비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차입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인한 아프리카의 부채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정부 수입 대비 대외 채무 상환액이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상승했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49개국의 대외채무 상환액 중앙값은 2015년~2019년 정부 수입의 6.1%에서 2020년~2022년 10.6%로 증가했다. 부채 상환에 자원이 투입되어 재정 여력을 악화시켜 성장 촉진 부분과 인적 자본 개발(교육 및 보건)에 투자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 제한되었다. 교육 및 보건 분야는 아프리카 대륙의 평균 공공 지출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분야다.

그러나 상당한 글로벌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 낙관론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주요 하방 리스크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실질 임금을 더욱 낮추고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래 동안 유지하여 아프리카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는 대내 차입 비용이 높은 국가의 민간 부문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 지정학적인 긴장과 양극화 심화로 인한 글로벌 무역 및 투자의 장기적 교착 상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아프리카의 성장을 뒤흔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화되면 아프리카 경제 회복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빈곤 감소를 방해하고, 아프리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통화정책 완화 과정을 지연시켜 긍정적인 경제 전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일부 국가에서는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미 심각한 인도주의적, 사회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 및 거시 경제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기후 충격은 아프리카의 성장 회복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한다. 실제로 기후 변화는 특히 아프리카의 뿔과 사헬 지역에 있는 전환기 국가들을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의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주요 호재

- 재정 통합 및 부채 구조화의 긍정적인 추세가 더욱 탄력을 받고 글로벌 시장 여건이 개선된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 금리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함께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 지속적인 구조 혁신과 새로운 자본 축적은 성장 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 부문 간 및 부문 내 생산성 증가의 선순환은 실질 임금을 상승시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장기 자본 축적에 필요한 저축동원의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다.
- 선진국과 일부 신흥 시장의 정책 금리가 낮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다. 금리 인하는 두 지역의 신용 성장을 되살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하며, 공공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성장을 다시 촉진시킬 것이다. 이 두 지역을 합산하면 전 세계 GDP의 40%, 아프리카 외국인직접투자의 55%,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ODA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글로벌 성장 회복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의 거시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 경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다양한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

단기

- 국내 통화 약세 속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디스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하려면 맞춤형 통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고 주로 일시적인 공급 충격에 의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더욱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

- 환율 압력을 해소하는 것을 단기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 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가 가능한 많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거스르려고 하면 경제에 2차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고정 환율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환율 패리티(parity)를 유지하고 외환 보유고의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가 안정된 중심국의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 식량 가격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을 촉진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프리카의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면 아프리카, 특히 도시 지역에서 농업 혁명을 일으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부들에게 저렴한 금융, 개선된 식량 생산 기술(특히 극한 기후 조건에 적합한 종자), 대규모의 체계적 확장 및 기계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량 생산을 늘리고, 단기적으로 식량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거버넌스 개혁을 실행하고 부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차입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더불어 공공부채 부담을 줄이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성장을 창출하는 부문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아프리카 경제의 경제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중장기

- 공공부채 증가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 자원 동원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 부채관리 개선과 불법 자금 흐름 차단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수집과 유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현재 글로벌 금융 체계를 개혁하면 채무 재구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 주요 제안으로는 조정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간 대출기관이 참여하는 확대된 채권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등대우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있다.
- 아프리카의 경제 변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발 자금의 보완재로서 외부 금융 흐름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의 경제 혁신에 필요한 자금조달에서 국내 자원이 필수적이고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외부 금융 흐름은 개발 자금의 보완적인 재원으로서 필수적이다.
-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의 여파로 아프리카가 경험한 장기적인 성장 변동성과 소득 성장률의 하락은 아프리카 대륙의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프리카의 거시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 경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다양한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

2장

아프리카의 경제 혁신 진행상황

아프리카 경제는 여러 차례의 충격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구조적 변화는 더디고 불균등하게 나타났다. 실질 총 국내총생산(GDP)는 성장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이전 40년 동안 아프리카의 실질 총 GDP는 연평균 3.8% 성장하여 성장중인 아시아를 능가했지만 1인당 실질 GDP는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더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 대부분 아프리카의 경제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경제 주체가 아프리카의 성장과 고용을 주도해왔다.

아프리카는
제조 활동이 저조하여
뚜렷한 산업화가 아닌
저숙련 서비스 부문을
통해 변화해왔다.

사실상 아프리카는 제조 활동이 저조하여 뚜렷한 산업화가 아닌 저숙련 서비스 부문을 통해 변화해왔다.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적 변화에 기여한 서비스업 고용의 확대는 농업 분야의 고용 비중 급격한 감소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개인 및 소매 서비스 부문으로 경제활동이 재배치되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부문별 재배치가 구조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최근 전반적인 서비스 성장의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금, 금융, 정보통신기술(ICT)와 같은 고숙련 서비스가 아프리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0.1%(2005년 20.7%)에 지나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구조적 변화 과정은 더디고 불균형적이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전히 구조적 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농업 부문과 비농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아프리카 노동력의 42%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 부문은 여전히 경제 전체 생산성 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60%나 낮다. 반대로 아프리카 전체 노동력의 약 3% 정도만 고용하고 있는 광업, 유틸리티, 금융서비스 분야는 경제 전체 평균보다 생산성이 10배 높다. 따라서 대부분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갇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부문별 고용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 국가 중 절반에 가까운 25개국이 구조적으로 저개발 국가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농업 부문은 2021년 총 고용에서 중위값 기준 61.9%를 차지하여 아프리카 대륙 평균값(40.6%)보다 21%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들 국가의 농업 노동 생산성 중앙값은 비농업 부문의 17.5%에 불과하며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값 기준 약 23.2%다. 산업 부문 종사자 수가 농업 부문 종사자보다 많은 구조적으로 발달된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하다.

제조업과 더불어 서비스업도 잘만 활용한다면 아프리카의 생산성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규모,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높은 생산성 잠재력,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물적 자본의 역할 등 서비스의 주요 특징들을 활용하여 서비스 주도 성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이 모델에는 일반적으로 노동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이지 않은 비거래형 서비스와 관광, 비즈니스, 금융 등 거래형 서비스, 그리고 중계 무역에 필요한 외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육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서비스 무역 가치는 2000년에서 2022년 사이에 664억 달러에서 2,694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미 아프리카의 국제 무역에서 서비스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구조적 변혁을 위해서는 제도가 중요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 및 하드 인프라에 투자하는 제도가 잘 정의되고 작동하는 국가들은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거래 비용과 정보의 불투명성을 줄임으로써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부패가 덜한 국가들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성장을 촉진하고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었다. 또한 양질의 공급 서비스와 정책의 일관성을 갖춘 국가는 구조 개혁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경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들은 구조 개혁을 촉진할 잠재력이 큰 핵심 부문(교육, 에너지, 교통 인프라, ICT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 혁신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양질의 인프라(소프트 및 하드 인프라)는 일관된 정책과 탄탄한 제도의 이점을 강화해준다.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연간 약 4,020억 달러의 자금 격차를 해소하여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높은 성과를 보이는 개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 이러한 자금 조달 격차는 아프리카 대륙이 구조적 변화를 개선하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인 교육, 에너지, 생산성,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프리카 대륙의 막대한 천연자원, 중요 희토류 광물에 대한 투자를 활용하는 등 국내적으로 자원을 추가로 동원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공 지출과 함께 세금을 징수하면 이러한 재정 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구조적 전환을 위한 자원 부족을 국내 자원만으로 메우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재정 여력과 세수 능력이 제한적이다. 또한 민간 부문은 여전히 위험을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구조적 전환을 위한 핵심 부문에 대한 투자자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2030년까지 재정 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동원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국가가 국내외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려면 보다 합리적인 목표와 자금 조달 옵션의 조합을 통해 점진적이지만 꾸준한 구조적 전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목표 기한과 관계없이 공공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 아프리카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이 막대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교우위 분야에 맞춘 자생적 개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도화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진행상황을 방해하는 정책 뒤집기를 피해야 한다. 이러한 개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발 계획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경제와 사회문화적 여건에 대한 지역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인의식을 발휘하고 국가, 지역, 글로벌 맥락에서 독특한 비교 우위를 완전히 활용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구조적 전환 속도와 정도는 정책의 질, 관련성, 효과성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며, 개발 계획과 전략의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실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들을 국가적으로 합의된 개발 계획과 비전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타나는 선거 주기에 따른 정책 뒤집기를 피해야 한다. 공공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행, 특히 재정 정책을 구조 전환 목표와 연계하면 확실성과 안정성을 창출할 수 있고 구조 전환 의제를 지지하는 분야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현지의 현실과 상황, 개발 우선순위에 적합한 인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에는 인력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스킬을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국가들은 모든 수준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현지 상황에 맞는 개발 아젠다를 이끄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소프트 스킬의 수준과 관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 우위 및 경쟁 우위 분야의 생산성 성장을 강화하는 학습 시스템과 커리큘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기술력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광물과 광대한 경작지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지질학자, 농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를 충분히 양성하여 이들이 자원을 활용하여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연간 약 4,020억 달러의
자금 격차를 해소하여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높은
성과를 보이는
개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

국가들은 국내
자원 동원을 확대하고
공공 재정관리에서
신중함을 우선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언어를 포함한 교육 및 기술 학습과 훈련 시스템을 국내화 하는 것이 교육 커리큘럼의 품질과 관련성을 높이고 현재 진행중인 4차산업혁명, 기술, ICT 붐을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학 및 기술 및 직업 훈련 센터와 협력하여 우수 혁신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노동 시장에 더 잘 맞추고 아프리카 대륙에 만연한 기술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 중심의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졸업생들이 노동 시장의 요구에 맞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아프리카의 구조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는 국내 자원 동원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DRM)을 확대하고 공공 재정 관리 (public finance management, PFM)에서 신중함을 우선시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발 의제를 소유하고 구조적 전환을 위한 자원 조달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국내에서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각 국의 개발 전략의 핵심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자원 동원은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막대한 개발 자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모금된 수입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부패 및 다른 곳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DRM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더 많은 세수를 동원해야 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2030년까지 구조적 전환에 필요한 연간 4,022억 달러의 자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GDP 대비 조세 비율이 중앙값 기준으로 현재 약 14.0%에서 최소 27.2%까지 증가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구조적 변혁을 위한 DRM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는 조세 행정과 공공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 징수 및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재산 소득, 로열티, 벌금, 과태료, 물수, 사업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경제에 만연한 비공식성으로 인해 관리가 소홀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PFM 시스템은 예산 프로세스에 비과세 수입 계획을 통합하여 징수된 세입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뿐만 아니라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세입 징수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와 재정 담당 부서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민과의 사회적 약속을 강화하여 납세 준수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 국가들은 자발적인 납세 준수를 촉진하여 DRM을 증가시켜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 취약한 집행 역량, 비공식 기업과 같이 과세하기 어려운 부문이 우세한 경우가 많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양질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 자원 활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암묵적 과세를 크게 줄임으로서 세수를 공공 복지를 위해 가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를 강화하는 것도 DRM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프리카 비공식 부문의 규모는 과세 기반과 세수 징수를 크게 제한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비공식 고용은 전체 고용의 85.5%를 차지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공식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세수를 징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공식 기업의 권리, 자격,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협회, 비정부기구 또는 지역 커뮤니티 그룹과 같은 중개자를 통해 자원과 정보, 연금 제도, 사회 보험 또는 등록을 조건으로 하는 기타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공식 부문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국은 국내 세수 동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DRM부터 감사 및 공적 책임 시스템 강화에 이르기까지 공공 재정 관리 주기 전반에 걸쳐 공공 재정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각 국가는 상품, 서비스, 자본, 금융을 위한 국내 및 지역 시장을 구축하고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국내 및 지역 금융 및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면 각국의 대외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견고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재산권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 부문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다양화하며, 지역 차원에서 법적 조화와 자산의 교차 상장을 통해 금융 시장을 지역화해야 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연기금과 보험,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의해 완전히 이행되고 내재화 된다면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자본, 인재,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단일 대륙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케냐와 르완다가 주도하고 있는 아프리카인에 대한 개방형 비자 입국과 같이 노동력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AfCFTA의 운영을 촉진할 수 있다.

AfCFTA를 통한 우선 조달 솔루션의 창출은 아프리카 대륙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생산 능력과 서비스 성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연합과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이 AfCFTA에 따른 무역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에 범아프리카 결제 및 정산 시스템(PASS)을 출시하는 것은 무역 파트너 간의 통화 위험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PASS는 아프리카 각국에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데 따른 복잡성과 비용을 간소화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열어주는 운영 효율성을 제공한다.

각국은 특히 기술적, 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현지 콘텐츠 정책과 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프랜차이즈화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아프리카 국가 간 국경 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구조적 전환을 위한 주요 부문에서 국가의 자생적 개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자본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도록 목표가 명확하고 간소화된 인센티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민간 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각국의 구조적 전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민간 부문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하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며, 세심하고 목표에 맞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및 외부의 민간 부문이 핵심 부문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혼합 금융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 기법을 사용하면 녹색 성장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늘릴 수 있다. 녹색 채권 및 대출, 지속가능성 채권 및 대출 등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과 탄소 시장의 개발은 녹색 부문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외부 자금 조달원인 송금은 외부 자금 조달의 중요한 원천이다. 예를 들어, 디아스포라 채권과 디아스포라 “송금 증권화”를 통해 아프리카의 송금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국가들은 경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자연 자본의 수익 창출과 보존에 투자하고 이를 국가 계정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프리카의 자연 자본 자원은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자원이 제공하는 가치나 서비스는 아프리카 국가 부의 일부로서 제대로 측정되지 않거나 아예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녹색 부(green wealth)¹가 풍부하지만 아프리카 경제의 가치는 계속해서 과소평가되고 있다. 자연 자본에 투자하고, 측정하고, 가치를 평가하여 국가 계정 시스템에 통합하면 아프리카의 녹색 부의 진정한 가치를 추정하고, GDP를 확대하고, 보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은행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녹색 부를 적절히 평가하고 이를 GDP에 통합할 것을 지지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은 탄소 격리, 오염 제어, 토양 비옥도 유지와 같은 필수적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생존을 유지한다. 이러한 중요한 환경 서비스를 국가 GDP 가치, 즉 녹색 GDP에 포함시키면 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청년 기업가 정신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배당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조적 전환을 위한
주요 부문에서
국가의 자생적 개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자본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도록 목표가
명확하고 간소화된
인센티브를
만드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030년에는
전 세계 젊은이
4명 중 1명이
아프리카
청년이 될
것이며, 이 젊은
인구를 잘
육성한다면
아프리카
대륙의 미래
경제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아프리카의 가장 큰 자산이며, 이를 잘 활용하면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젊은이 4명 중 1명이 아프리카 청년이 될 것이며, 이 젊은 인구를 잘 육성한다면 아프리카 대륙의 미래 경제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젊은이들이 인구배당효과는 인적 자본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젊은이들을 위한 경제 및 일자리 기회 창출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15~35세 인구 중 3분의 1은 실직 상태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취약 고용 상태이며, 6명 중 1명만이 임금 고용 상태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2063년까지 매달 1,7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배당효과를 활용하고 광범위한 청년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청년 일자리 전략과 청년 기업가정신 및 혁신 다자간 신탁 기금에 따라 아프리카의 청년 기업가들에게 맞춤형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실패와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청년 기업가정신 투자 은행을 설립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국이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 실행을 위한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유형의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지리적 상황과 개발 수준에 따라 구축할 인프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밀하고 부문별 인프라 구조를 갖춘 '우수한 섬'을 만드는 데 제한된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높은 사회적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 부문과 내륙국이 항구가 있는 연안 국가와 연계하는 데 특히 중요한 교통 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디지털화의 중대한 혁신적 영향을 고려할 때, ICT 부문에 대한 투자는 아프리카 국가와 전 세계 간의 기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야심찬 국가 디지털화 프로그램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DRM을 개선하고, 불법 자본 흐름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시장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국가 자본의 적절한 측정과 평가를 촉진하며, 청년 주도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것이다.

거시경제 정책과 비즈니스 환경의 거버넌스를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각국은 리스크 프로파일링과 인식을 개선하고 프로젝트 준비 및 실행 역량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글로벌 자본과 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투자 가능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부족은 민간 금융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혁신 금융 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꼽힌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개발 및 준비 기간이 길고 다각적인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의 거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많은 아프리카 정부와 현지 민간 기업은 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짧은 정치 주기로 인해 민간 부문의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위험 수익률 기대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따라서 재정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프로젝트 준비와 실행에 있어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러한 역량을 구축하려면 민간 금융기관이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구축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구상부터 자금조달까지, 즉 타당성 조사 개발부터 시장 전망 분석,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젝트 주기에 걸쳐 참여하게 되면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을 받고 운영될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거시경제 및 투자 환경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아프리카 국가의 리스크 프로필을 개선하고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외부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3장

아프리카의 금융 구조 혁신: 글로벌 금융 체계 개혁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자 금융기관은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금융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80년대 초 중남미의 부채 위기, 1980년대와 1990년대 아프리카 부채 위기,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 위기, 2007~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2021년 코로나 19 팬데믹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다자 금융 기관은 각 국가를 지원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대응 조치를 주도함으로써 아프리카 및 기타 개발도상국의 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했다. 최근 사례로는 부채 서비스 중단 이니셔티브, G20의 부채 해결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재정 및 국제수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IMF의 6,500억 달러 상당의 특별인출권(SDR) 일반 할당 등이 있다.

글로벌 금융 체계(GFA)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구조적 변화를 위한 아프리카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대규모 자원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금융 체계와 다자주의 시스템은 SDG와 아프리카 연합의 아젠다 2063을 포함한 아프리카의 국가 및 글로벌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적시에, 그리고 규모에 맞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구성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아프리카의 개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스템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개발 금융에 접근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국가 차입 비용은 종종 부채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현재 글로벌 기후 자원 구조와 규모는 현재 GFA를 반영하고 있어 가장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 복원력 기회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기후 자원 구조는 복잡하고 느슨하게 정의되어 기후 취약성 및 기후 위험과 맞지 않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체계의 또 다른 한계는 주관적인 신용등급으로 인한 국제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 및 신흥 경제국보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더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아프리카 국가 유로채권은 5% 이상 수익률로 발행되었으며 그 중 40%는 수익률이 8%를 초과했다. 반면 선진국의 평균 국채 수익률은 1.1%, 신흥 국가의 경우 4.9%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차입할 때 세계은행이나 아프리카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에서 차입할 때보다 500% 높은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금융 체계의 이러한 약점은 다자간 기관들의 제도적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증폭시킨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도구들이 더 민첩하고 포용적이며 대응력 있게 된다. 글로벌 과제의 규모와 범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 기관들은 개발 금융을 수십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필요한 규모의 금융을 달성하려면 공공과 민간 부문이 전 단계에서 - 글로벌, 지역, 국가 수준에서 -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모든 출처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세계은행, IMF, 지역개발은행 등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리스크 자본을 보다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민간 자본을 동원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 체계(GFA)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구조적 변화를 위한 아프리카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대규모 자원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특별인출권(SDR) 순환,
다자개발은행 자본 적정성
개혁 이행, 신용 등급 평가
방식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아프리카의 구조
전환과 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늘릴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체계를 보다 민첩하고 채무 구조조정에
적합하도록 긴급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아프리카에서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34%에 이르며, 채무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 무역의 혜택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프리카가 초래하지 않은 기후 변화의 영향은 GDP
1인당 연간 성장률을 5-15% 감소시키고 있다. 더욱이,
파리클럽 프로세스 외에서의 아프리카 채무 해결은
무질서하고 지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큰 실정이다.

다자간 개발은행과 금융 기관(세계은행, IMF, AfDB,
그리고 기타 지역 개발은행)은 회원 구조로 볼 때
개발도상국에서 SDG 달성을 위해, 그리고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배분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지배구조(주식 모델, 가중 투표 시스템) 및 가용
자원은 자금이 가장 필요한 국가로의 신속하고 대규모
자금 유입을 종종 방해해 왔는데,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긴급 금융에 대한
접근은 주로 가장 필요성이 낮은 선진국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IMF가 2021년에 발행한
6,500억 달러의 SDR 중 아프리카는 4.5%인 330억
달러를 받았다.

또한 2020-2021년 기간 동안 팬데믹 대응을 위해 투입된
17조 달러(전 세계 GDP의 19%)의 재정 조치 중
아프리카가 받은 몫은 단 895억 달러(0.5%)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기후 취약성이나 자발적 탄소 시장
개발 등과 정렬되지 않은 글로벌 기후 금융 아키텍처의
규모와 흐름에서도 관찰된다.

아프리카와 기타 개발도상국의 점점 복잡해지는 개발
과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지역,
국가 기관들을 강화하고, 글로벌 및 지역 기관 간 보충성
협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개발금융기관을
포함한 다자주의는 수십 년에 걸쳐 다층적 거버넌스
형태로 변화해왔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지역개발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 기구의 회원국이며, 일부 회원국은 중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 은행들은 책임 공유, 역량 구축, 정보
및 모범 사례 교환, 긍정적인 정책 성과를 통한 정당성
제고 등으로 다자주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SDR 순환, 다자개발은행 자본
건전성 개혁 이행, 신용 평가 방식 개선 등의 구체적인
개혁 조치들이 실행된다면, 아프리카의 구조 전환과
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늘릴 수 있다. 브리짓타운
이니셔티브의 제안대로 다자개발은행에 1,000억
달러를 재배분한다면, 향후 10년 동안 아프리카의 연간
재원이 약 462억 달러 늘어날 수 있다. G20이 제안한
다자개발은행 자본 건전성 프레임워크 개혁을 통해서도
아프리카에 대한 연간 52억 달러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IMF의 연체 채무 대출 정책이
완전히 실행된다면 아프리카는 440억 달러의 누적 연체
채무를 절감할 수 있다. 나아가 신용 평가 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근본적인 요소에 기반하도록 개선된다면,
아프리카는 매년 740억 달러의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한다면 연간 1,694억
달러 규모의 개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프리카의 연간 재원 격차 4,022억
달러의 약 4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아프리카의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 체계(GFA) 개혁 조치를 이행한다면
아프리카의 구조 전환을 위한 상당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 대륙은 풍부한 자연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조세 및 비조세 수입 제고, 공공지출 효율화,
불법 금융 유출과 탈세·회피 방지 등을 통해 자국 내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제안

아프리카의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자원과 글로벌 금융 체계의 약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권고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저비용 양허성 대출 규모를 가속화한다.

-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다자개발은행에 재배분하여 아프리카의 구조 전환을 위한 자원 동원을 확대한다.
-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기금(ADF), 국제개발협회(IDA)의 양허성 자금 창구를 각각 건전하게 보충한다.
- 글로벌 조세 거버넌스를 개혁하여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만든다.
- G20의 자본적정성 프레임워크와 트리플 아젠다 이행을 통해 다자개발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을 극대화한다.
- 양자 및 민간 채권자들의 자금 규모와 투명성을 개선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글로벌 부채 구조를 개혁하여 개발도상국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민첩하며, 접근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 부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현행 부채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DSF)를 업데이트하여 경제 구조의 변화와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
- IMF-세계은행의 부채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DSF 방법론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여 결과를 쉽게 재현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한다.
- Af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들이 국제 신용평가기관들과 협력하여 국가 위험 평가 방법론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 국가들을 위해 기후 금융 접근성을 강화한다.
- 기후 금융 구조 절차를 간소화하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 준비 절차를 수행할 능력이 제한적인 기후 취약 국가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 손실과 피해 기금을 확대하여 각국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기후 영향을 재정적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다.

- 기후 금융으로 부채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 경우 종종 기후 취약 국가들의 부채 취약성이 증가한다.

아프리카의 긴급 대출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혁을 채택한다. 다음 세 가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 IMF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을 쿼터와 연계하지 않는다.
- 국제금융기구와의 대출 계약에 국가 조건부 조항을 도입한다.
- 아프리카 긴급 대출제도/금융 안정 메커니즘 또는 기관 창설한다.

글로벌 금융 체계(GFA)의 거버넌스를 보다 포용적으로 만들어 아프리카의 참여와 목소리를 강화한다.

- 국제 금융시스템 거버넌스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에 거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지 않는다.
- 글로벌 금융 기관에서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증대시키는 것은 세계 무대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에 맞추어 이들 기관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대한 아프리카의 주인 의식을 높일 것이다.
- G20에 아프리카연합을 정식 회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한 주권국 회원인 상황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여전히 과소평가 되고 있다.
-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주권국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권장된다.
-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규모를 키우고 글로벌 금융 체계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성장 촉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

체계(GFA)

개혁 조치를

이행한다면

아프리카의

구조 전환을 위한

상당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 국가 부의 녹색화를 위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 의무 요건을 시행한다.

- 아프리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미미한 역할을 하지만 콩고 분지 열대우림과 같은 아프리카의 자연 자산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며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러한 자연 자산들은 탄소 격리, 생물다양성 보존, 기타 생태계 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의 가치가 국가 부의 측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 이러한 자연 자원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국가 회계 시스템에 반영하면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의 녹색 부를 활용하여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권과 같은 자원을 확보하여 녹색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투자할 수 있다.

변혁과 기후 정의를 위한 민간 부문 자금 조달을 활용한다.

- 국내 수입 동원을 확대하고 공식 다자 및 양자 채권자로부터 양허성 자금 조달을 통해 단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공공자원의 규모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아젠다 2063을 충족하기 위한 아프리카의 구조적 변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할 것이다.
- 민간 부문은 자원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기후와 녹색 성장을 위한 민간 자금을 장려하는 조치는 아프리카의 구조적 변혁에 매우 중요하다.
- 글로벌 금융 체계의 개혁은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기존 자산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여 인프라와 기타 구조적 변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촉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창출하는 자산 순환을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개혁은 프로젝트별 접근 방식 대신 민간 부문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기반 접근 방식을 위한 체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고 동일한 포트폴리오 내 프로젝트들 간의 기존 시너지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프로젝트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주석

1. 이 맥락에서 사용된 "녹색 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의 아데시나 총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측정되지 않은 자연 자본의 가치"를 의미하는 용어다. [https:// www.afdb.org/en/news-and-events/speeches/keynote-speech-dr-akinwumi-adesina-president-african-development-bank-group-40th-anniversary-guardian-newspapers-lagos-nigeria-28-november-2023-66327](https://www.afdb.org/en/news-and-events/speeches/keynote-speech-dr-akinwumi-adesina-president-african-development-bank-group-40th-anniversary-guardian-newspapers-lagos-nigeria-28-november-2023-66327) 참조

잇따른 여러 악재 속에서도, 2023년 아프리카의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는 개발도상 아시아(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의 성장 실적은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대륙 수출에 대한 약한 세계 수요, 심화된 환율 평가절하, 기후 변화의 영향, 그리고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전년도의 4.1%보다 낮았다. 중기 전망은 세계, 지역, 국내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에 3.7%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4.3%까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 예상 성장률로 아프리카는 2024년에도 개발도상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2024년에는 17개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률이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10개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0개 경제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따른다.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으며, 미국 달러화의 지속적인 강세로 인해 아프리카의 국내 통화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높은 식품 가격은 또한 대다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로 낮추기 위한 전통적인 통화정책 도구의 활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로 인해 장기화된 무역과 투자의 교착 상태는 국내 정책 개입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 지역 분쟁과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기후 충격 또한 성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평균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40년 동안 약 4퍼센트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1인당 실질 GDP 성장은 충분히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으며 -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였다 - 따라서 빠른 사회경제적 변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지 못했다. 이러한 비대칭의 주요 요인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경제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전통적인 부문 - 주로 농업, 여행, 운송 및 기타 저숙련 서비스 - 이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성장과 고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만으로 대륙 노동력의 4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 비율보다 60퍼센트나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의 구조적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은 포용적 성장을 야기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대륙의 방대한 천연자원에 가치를 더하는 중요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2030년까지 연간 약 4,020억 달러의 자금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에너지, 생산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는 것(국내 내생 프로그램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과 결합)이 대륙의 변혁 잠재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프리카는 또한 신흥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을 활용하고 작은 기업, 높은 생산성, 더 큰 노동 집약도라는 주요 특징을 활용하여 서비스 주도 성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은 아프리카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관광, 사업, 금융,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교역 가능 및 불가능 서비스의 축진을 포함해야 한다. 제조업 주도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 노력은 대륙이 다른 지역의 고성과 개발도상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의 규모는 수입 징수의 상당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원만으로는 생성될 수 없다. 국내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외부 자원을 탐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의 자원을 적정한 조건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 체계를 포용적이고 민첩하며 목적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개혁에 대한 국제적 요구의 증가하는 추세는 아프리카가 개혁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자신의 필요, 특히 구조적 전환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기후 행동과 기타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응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

Avenue Joseph Anoma

01 BP 1387 Abidjan 01

Côte d'Ivoire

www.afdb.org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GROUPE DE LA BANQUE AFRICAINE
DE DEVELOPPEMENT

